

홍법사엔 ‘외국인 불자 봉사자’가 있다

합동 차례·법회 등 사찰 행사
외국인 불자 봉사자 안내 맡아
불교 체험·언어 학습 ‘일석이조’
2월 중 ‘국경 없는 봉사회’ 출범
외국인 포교 새로운 모델 ‘주목’



홍법사 12주년 개산대제 육법공양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봉사자들.

2월 8일 설날, 부산 홍법사에는 합동 차례를 지내기 위해 방문한 불자들이 문 전성시를 이뤘다. 자원봉사자들마저 귀향한 상황에서도 홍법사의 합동 차례는 여법하게 진행된다. 이유는 홍법사에서 만 볼 수 있는 외국인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외국인들이 한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질서 유지 등을 진행하는 모습은 매우 이색적이다. 여기에 합동 차례를 지낼 때는 직접 잔을 채우고 제사를 함께 올리기도 한다.

사실 외국인 자원봉사자는 홍법사에서 낯선 광경이 아니다. 지난해 12주년 개산대제에서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연등을 들고 육법공양을 올리기도 했다. 체험을 통한 성취감을 중요시 하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에서의 봉사는 상당한 매력을 가진다. 실제, 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은 언어 학습과 불교 체험 등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에서 온 산지부 구마로(33, 동국대 불교학과) 씨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

라 사랑으로 미소 짓고 봉사하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다”며 “심산 스님은 저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주신 분”이라고 밝혔다.

티베트 출신 댄진 최원(27, 동국대 국제경영학과) 씨는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따라 수행법은 다르지만 불교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인이어서 깊은 수행은 못하지만 봉사 활동을 통해 남을 돕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홍법사에서 봉사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단체 결성도 준비 중에 있다. ‘국경 없는 불자 봉사회’ (가칭)이라고 명명된 단체는 모여 2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10여명으로 시작할 ‘국경 없는 불자 봉사회’ 구성원들은 출신 나라

와 직업도 다양하다.

티베트에서 7년 동안 불교 수행을 이어온 미국인 에밀리 켈리 교수(동국대 영문과)를 비롯해 티베트, 몽골, 인도 등에서 온 동국대 교환학생, 캐나다인까지 모두 홍법사를 위해 봉사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홍법사에서 국제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심지영 국제 포교사는 “봉사는 외국인들에게 성취감을 줄 뿐 아니라 가족 애처럼 끈끈한 정을 쌓게 한다”며 “또한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한국불교문화를 깊숙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6년 넘게 봉사 활동을 이어 오는 외국인들이 있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 봉사회’가 앞으로 담당할 역할은 수행이다. 홍법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수행을 위한 지도도 진행한다. 법회도 외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소통을 강조한 즉문즉설 형식의 법문과 체험 위주가 된다.

심산 스님은 “외국인들은 일반적인 형식의 법회 보다는 대화하며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그런 특징을 잘 살려 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또한 외국인들을 접해 본 결과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참선이다. 참선을 통한 명상 수업도 진행해 깊이 있는 불교 수행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봉사회로 인해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구성점이 마련 될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 청소년들과 대학부 청년들과 어울리는 장을 마련해 국제적인 환경을 제공하면 젊은 불자 포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봉사단 창단 원동력에 대해 홍법사에서는 20년 동안 어김 없이 이어온 국제부 활동과 국제 포교사들을 위한 심산 스님의 후원과 관심을 꼽았다. 국제포교사 부울경 지부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국포사를 지원해 이어 오고 있다. 또한 한나래문화재단을 통해 가난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심산 스님은 “그들은 이제 봉사와 수행으로 외국인들 가운데 구성점이 되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면서 더 많은 불자들을 포교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이어 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민추본, 청년불자 위한 ‘통일 강연’ 첫 선

2월 18일~3월 25일 6강 실시... 고성 현장순례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조계종)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이식을 확산시키고자 ‘불교청년통일기획자과정 1기’를 2월 18일 개강해 3월 25일 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통일관련 강의를 실시한다. 강사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세부 강의주제는 △2월 18일 ‘분단의 탄생과 역사적 배경’ △2월 26일 ‘분단은 현재 진행형-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서 분단 트라우마까지’ △3월 4일 ‘북한에 대한 선입견과 이해’ △3월 11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 △3월 18일 ‘불교와 통일-불교계 통일을 위한 실천과 노력’ △3월 25일 ‘남북불교교류의 역사와 현황’ 등이다. 특히 3월 26-27일에는 1박 2일로 고성 접경지역 현장순례를 떠난다.

모집정원은 15명으로, 신청 희망자는 전화문의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민추본 측은 “이번 과정으로 남북불교교류에 이바지할 미래 인재를 꾸준히 발굴, 양성할 계획”이라며 “정치권과 사회에서 ‘통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생소한 주제가 된 지 오래다. 불교계 청년학생들이 통일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720-0531

박아름 기자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 실시

문화재청, 11월까지 4개 분야 9개 과정 운영

매장 문화재 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는 매장문화재조사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2016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교육은 △기초교육 1개 과정(조사현장 안전보건) △전문교육·직무분야 2개 과정(법령과 행정실무, 조사기관 운영 특강) △전문교육·조사연구분야 5개 과정(토층조사, 유물실측, 구석기유적 조사, 발굴보고서 작성, 지표조사) △시민강좌 1개 과정(매장문화재 보존관리 홍보) 등 4개 분야 9개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특히,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강사진을 위촉하여 실습교육 중심으로 진행하고, 전문가와의 공동기획을 통해 교육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비롯하여 관련 학과 대학(원)생, 매장문화재조사 의뢰기관 관계자 등으로, 이번 교육은 발굴조사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신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공고를 비롯하여 교육일정과 참가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로 본 아나키즘

불교평론, 18일 열린논단

아나키즘(Anarchism)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모든 정치 조직이나 권력, 사회적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정의, 형제애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운동’을 의미한다. 아나키즘을 불교적 해석하고 사상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2월 18일 불교평론 신사동 사옥 세미나실에서 ‘아나키즘의 불교적 해석’을 주제로 2월 열린 논단을 개최한다. 발제는 아나키즘 전문가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불교평론은 “아나키즘은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가르치는 불교와도 매우 흡사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열린논단은 불교와 아나키즘이 어떤 동이점을 갖는지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학술상 공모 잇달아

원효 학술상 2월 29일·전법 학술상 4월 30일까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상 공모가 잇달아 진행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 원효 학술상운영위원회는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제7회 원효학술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한은 2월 29일까지이며, 부문은 교수,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석·박사 과정 학생이다.

공모 논문은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홈페이지(www.kbpf.org)의 지원서를 내려받아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를 하면 된다.

교수 저술상은 1000만 원, 논문상은 700만 원이며, 비전임교수는 논문상(저서 포함) 500만 원이며, 석·박사 과정 학생은 금상 300만 원, 은상 250만 원, 동상 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02)719-2606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흥스님)이 전법과 교화에 대한 학술적 담론을 개발하고 전법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제5회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전법에 대한 불교사상에 대한 분석 △전법의 역사적 사례 및 전법에 헌신한 인물 탐구 △전법의 모범

사례 발굴과 해외사례 비교연구 △전법에 대한 현대적 방법론 제시 △미래 지향적 전법론과 방법론 제시 등이다.

응모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내 외 교수 및 학자(전공불문), 승가대 학인, 군법사, 포교사, 종무원 등 불교기관 종사자다.

연구계획서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메일(baramil74@hanmail.net)로 제출하면 되고 완성 논문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31일 개별 통보된다.

바라밀상 1명에는 상금 500만원, 전법상 2명에게는 상금 각 3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 논문은 시상식 날 발표회를 갖고, 불광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전법학연구>에 게재된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깨달음에 이르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내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평화롭고 명쾌한 지혜의 방편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화제의 시간

《이것이 깨달음이다》 백창우 선생이 안내하는 연기법 수행의 요체

연기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 연기법 이론부터 연기법 그리기, 수행 중 마주치는 경계에 대한 질문과 대답, 먼저 수행한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마음공부의 어려움으로 방향 잃은 당신을 위한 가장 쉽고 실질적인 수행법.

백창우 | 인터넷과 카페를 통해 깨달음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적광사출판사에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 <불교닷컴>에 칼럼을 연재했고, KBS 제1방송과 불교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저자가 지도하는 일주간의 집중수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저서로 수행지침서 <명쾌한 깨달음> 《이것이 깨달음이다》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가 있다.

세상의 진실에 눈뜨게 하는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 안내자

이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지름길은 있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도의 안개 길에서 목도한 질문과 명쾌한 해답.

백창우 | 800쪽 | 28,000원 | 양장

‘인간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 헤민 스님, 소설가 김연수가 추천한 사상가, 켄 윌버 그의 지적 세계에 다가가는 대표 저작

마음과 세계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진화하는가

모든 것의 역사

켄 윌버 | 조효남 옮김 | 664쪽 | 22,000원

삶, 종교,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혁명적인 통합 접근법

켄 윌버의 통합비전

켄 윌버 | 정창영 옮김 | 240쪽 | 13,500원 | 양장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에 대하여

늘 펼쳐지는 지금

켄 윌버의 지성과 달라이 라마의 따뜻함이 만났다. 새로운 영성 탐구법 ‘다이아몬드 에프로치’ 국내 첫 안내서.

알마스 | 박인수 옮김 | 480쪽 | 17,800원

박진여 전생 리딩 이야기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어떻게 조인하고 있는가. 원인도 해법도 전생을 가리킨다.

박진여 | 284쪽 | 12,800원